

벤처코리아 2009 벤처 컨퍼런스 개최

벤처 르네상스를 여는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의 혁신'에 대한 소통의 장

벤처코리아 2009의 첫 번째 부대행사로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의 혁신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경영학 명문 대학인 영국 Babson College 이유택 교수와 이민화 기업호민관(KAIST 초빙교수)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한정화 한양대 교수,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재만 씨모텍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국내 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유택 교수,

변화에 대한 준비와 네트워크 강화한 기업가정신 필요

이민화 기업호민관, 벤처 2.0 버전으로 바뀌어야

발표에서 이유택 교수는 해외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의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말했다. 그는 "해외 기업의 성장률을 보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며, "반드시 체계적인 혁신을 통해 현실을 직시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기업의 성장이 공급이나 유통 등에 좌우됐다면 이제는 변화에 대한 준비와 네트워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벤처기업의 벤처생태계의 문제점과 재도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벤처기업의 혁신의 본질은 불패전략에서 필승전략으로 바뀌어야 하고, 지속적인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며, "위험보다 기뻐감이 크도록 정책을 전개하고 연대 보증의 면제 대폭 확대해 선순환 생태계 형성에 주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공개통한 코스닥 상장으로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회수했던 벤처 1.0버전에서 M&A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하는 벤처 2.0버전으로 바뀌면 초기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한정화 교수는 "전 세대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벤처 컨퍼런스, 기업가들의 만남 등과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언오 전무는 "진정한 기업가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업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